

나타낸 “③ 흡연하면 체중을 줄일 수 있다”였고, 정서적 영역에서는 평균 3.83을 나타낸 “⑮ 흡연은 습관상 피우는 것이다”였으며, 윤리적 영역에서는 평균 3.96을 나타낸 “⑥ 시간과 장소를 알고 피우면 좋다”였다.

부정태도가 가장 강했던 모양은 신체적 영역에서는 평균 1.12를 나타낸 “⑳ 지나친 흡연은 몸에 나쁘다”였고, 정서적 영역에서는 평균 1.82로 나타난 “㉑ 흡연실·흡연 구역을 만들자”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미성년과 여성의 흡연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성인의 흡연태도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 태도를 취하는 양가감정을 갖고 있다. 또한 학년과 연령이 높아지면 서·학생흡연경험은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흡연이 신체적 위해나 질병과 직결된다는 지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서적·기타 차원에서 흡연을 합리화하려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모순되는 심리적 준비상태에서 보건교육이 적기에 신체적·정서적·윤리적 및 기타 영역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겠다.

일부 대학생들의 건강통제위 특성과 자가간호 이행과의 관계연구

중앙의대지 제13권 제1호, 1988.

이승진 · 최경숙 · 이미라

1. 결 론

본 연구는 학교집단 구성원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자가간호 이행과 건강통제위 성향과의 관계를 보고, 바람직한 자가간호 행위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서울특별시내 일개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182명이며 조사기간은 1985년 9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이었다.

연구도구는 Wallston & Wallston 이 개발한 다차원 건강통제위 척도를 번역한 것과 본 연구자가 자가간호 이행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백분율, T - test, Pearson 적률 상관계수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자연계 학생이 57.7%, 인문계가 42.3% 차지하였다. 여자가 53.3%로 다소 많았고, 종교는 57.1%가 있으며 경제상태는 74.2%가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연간 이용하는 건강관리 기관은 76.4%가 대부분 약국을 이용하고,

가는 횟수는 1~4회가 39%로 제일 많았고 90% 이상의 응답자는 만성질환이 없으며 66.5%가 대도시에서 성장하였다.

2. 건강통제위 성향과 자가간호 이행과의 상관관계는 내적 통제위 성향과 타인의존 통제위 성향이 강할수록 수면 및 휴식의 자가간호 이행에 유의하게 나타났다($r=0.1302$, $p=0.040$, $r=0.1753$, $p=0.009$).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통제위 성향분포의 차이는 전공과 성별요인이 내적통제 위 성향에 유의하게 나타났다($t=2.49$, $p=0.04$, $t=2.63$, $p=0.024$).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가간호 이행정도의 차이는 전공과 성별요인이 자가간호 이행중 운동영역에 유의하게 나타났다($t=2.89$, $p=0.02$, $t=2.89$, $p=0.02$).

2. 제 언

1. 연구도구의 일반화를 위해 반복연구와 표준화가 필요하다.
2. 자가간호 이행에 영향을 미칠 통제위 개념 이외의 다른 요인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남녀 대학생들의 가족계획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제32권 제1호, 1989.

강 현 숙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가족계획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인구와 가족계획에 대한 교육의 기초자료를 얻기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경북지역에 있는 대학과 전문대학의 학생 220명으로 1988년 6월 15일부터 6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1주일 동안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가족계획에 대한 이해는 '알맞게 낳아 잘기르는 것'이 가장 많았으며(남학생 : 44.9%, 여학생 : 78.4%),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2. 가족계획에 대한 태도는 '찬성'이 가장 많았으며(남학생 : 74.6%, 여학생 : 88.2%),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3. 가족계획의 이상적인 시기는 '결혼전 부터'가 가장 많았으며(남학생 : 44.9%, 여학생 78.4%),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00$).
4. 가족계획에 대한 부모와의 이견이 있을 경우 남학생은 '자신의 계획대로 하겠다'에 49.2%, 여학생은 '서로 타협하겠다'에 6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간에